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91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기로 1차는 7월 29일, 2차는 8월 5일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오는 7월 29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8월 5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4박 5일씩 두 차례에 걸쳐 미자립 농어촌 지역에 하기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기 농어촌전도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미자립 농어촌 지역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70인전도대나 해당 전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교회에 전도대를 파송하고, 현지 교인들과 협력하여 각종 전도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낮에는 축호전도, 밤에는 부흥집회를 가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할 것이다.

◇ 전도대 파송 일정

- 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 : 7월 13일(토) 오후



축호전도를 나간 하기농어촌 전도대원들

4시~7시

- 전도대별 모임 : 7월 27일(토)
- 파송예배 : 7월 28일(주일) 저녁 7시
- 전도대 파송 :
1차 : 7월 29일(월) 오전 9시
2차 : 8월 5일(월) 오전 9시
- 종합전도보고대회 : 8월 17일(토) 오후 6시
장소 : 베다니홀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J집사님,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복된 일인줄 알고 불철주야 교회당을 지키고 계신 집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여 죄송스럽지만 명동성당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곳을 성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이용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전을 결혼식장 정도로, 또는 산책이나 휴식공간 정도로 잘못 인식하는가 하면 어린이놀이터로 교회를 개방하라는 행정당국의 요구까지 있고보면 무너진 성숙의 개념, 잘못된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도 가져옵니다.

서양사람들은 여행자들이 관광차 성전을 방문할 시 정장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교회문을 열어주지 않을 만큼 교회를 신성한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J집사님, 제각기 요구가 다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무시로 출입하는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경비원 몇 분으로 이 거대한 교회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충현의 한 가족으로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6.23

이 중 윤 목사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은혜 중에 마쳐

제4차 홍해작전이 지난 16일 저녁 7시 승전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다.

6월 6일부터 11일간 충현의 성도들은 “은혜와 질서”라는 주제 아래 성도들은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사회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앙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천국시민질서를 실현하



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성도들은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저”라는 행동강령을 이후에도 계속 실천해나가기로 하였다.

대학부, 청년3부 기도원서 철야기도회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와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가 오는 28일(금) 충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이들은 한 달에 한번씩 충현기

도원으로 올라가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과 부서와 교회, 더 나아가 민족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짚기도, 합심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청년2부 30일에 초청전도집회 갖기로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오는 30일(주일) 오후 1시 소석관 507호에서 초청전도집회를 갖는다.

청년2부는 초청전도집회를 가 능한 한 자주 열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초청전도집회에는 “네 지경을 넓히라”(역사4:10)는 주제 아래, 김정우 목사의 특강, 찬양 등이 있을 예정이다.

청년1부

제15회 산돌초청잔치 계획 다음주엔 성경암송대회도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7월 7일 제15회 산돌초청잔치를 개최한다.

산돌초청잔치는 청년1부의 전신인 직장전도교육부의 대표적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청년층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오는 30일(주일)에는 회원들이 천국시민으로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암송대회도 개최한다.

새가족부

성경암송대회 다음주에

새가족부(부장 강순용 장로, 지도 김영구 목사)는 오는 30일(주일) 집회 시간에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신앙 초보자들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홍해작전 금식미로 사랑의 쌀 나누기에 동참 한기총, 동경YMCA에 지원금 전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

치신 사랑의 도를 실천하고, 복음전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18일에 홍해작전 금식미를 사랑

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맹술 목사)에 2천만원을, 동경YMCA에 3천만원을 전달하였다.

고등부 오늘 찬양대축제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송대근 목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에 갈릴리홀에서 “청소년 찬양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기도과 헌신으로 준비해

왔다. 학생들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된다.

>제4차 흥해작전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강해 (4)

이 중 윤 위임목사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청사진을 이미 받았습니다.

첫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자는 은혜 체험이 없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 무딘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등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란 귀속의 때와 같이 귀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빼

제1일

축복의 청사진 (1)

(약1:21)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귀를 막고 있는 더러운 것, 즉 악독, 꾀술(詭譎),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욕심, 죄악, 더러운 계획 등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는 운동이 바로 흥해작전입니다. 따라서 흥해작전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둘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마음에 심긴 도(道)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심겼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마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하면 됩니다. 마음에 심긴 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돌쩌발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사오니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들은 신앙을 위협한 신앙과 발전하는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위협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본문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약1:23)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거울로 출생시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고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없이 읽거나 배우게 되면 이처럼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

제2일

축복의 청사진(2)

(약1:22~25)

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속이는 자"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는 사단입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계12:9) 또 마태복음 24장 4절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속이는 자입니다(약1:22).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렘17:9).

속인다는 것은 이성과 진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읽고 설교듣

는다"고 말하는 자는 진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신앙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과 은혜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약1:24).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감상적이고 풍자적으로 이해하거나 표면적인 낱말풀이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도록 하고

회개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발전하는 신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듣고 있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약1:25) 우리들은 실행일치(言行一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또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즉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시19:11) "여호와 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시119: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눅11:28)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계22:7)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막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짓된 신앙은 첫째, 형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이라는 단어는 종교의식과 외형적 관례를 가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기도하며, 설교듣고, 헌금하면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신앙 행위를 스스로 말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딤후3:1~5). 또 요한계시록에는 사데교회를 향하여 "네가 잘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질책이 나옵니다(계3:1).

거짓된 신앙의 둘째는 자제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막이지 아니하고"

제3일

참신앙과 거짓신앙

(약1:26, 27)

말이란 인격이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잘못된 신앙인은 자기 신앙을 말로써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가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마12:34). 혀를 제어치 못하는 자는 경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 등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죄우리라"(약3:2)

또한 거짓된 신앙의 셋째는 결과(열매) 없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땀 흘리면서 수고한들 모두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를 통하여 이스라

엘 백성들의 가증된 신앙 생활을 질책하셨습니다(사1:10~15). 예배의 참 정신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거절하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참된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율법에 의해 칭의(稱義)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롬3:28; 갈2:9).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를 통해 칭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상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선행이란 영적 소득을 자연적 지출로 표출한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과 같은 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신앙의 둘째는 개인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이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사치, 폭력에서 떠나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1:21)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말씀을 배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홍해작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8년도부터 홍해작전을 실시, 성도의 영적 각성은 물론 진정한 헌신을 이루었으며, 여러고작전, 시온성대행진으로 이어져 89년때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를 통해 교회 갱신과 민족복음화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90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성령운동, 말씀운동,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번 제4차 홍해작전은 혼란과 무질서의 악령에 붙잡힌 현대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신앙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천국시민질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은 하늘의 메시지였고,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골수를 쫓개는 은혜로운 말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대화로 시작하는 기도 시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건너는 기도작전으로 성령의 뜨거움과 기도의 응답이 절절히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80여명의 연합찬양대가 부르

■ 홍해작전 승전보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손 경 수 장로(기획참모)



는 입술의 찬양은 주님께 열납되는 천사의 노래이었습니다.

이제 홍해작전은 충청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 목회" 패턴으로 정착시켰으며, 개교회의 기도운동 범주를 초월, 전국 교회로 확산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방과 세계 곳곳으로 기도의 불길이 되어 번져가고 있습니다.

다.

이번 제4차 홍해작전의 주제는 "은혜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차 무시되고 사치와 열락으로 사회는 명들과 패륜과 이기주의, 무질서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

원 58,950명이 참석하였으며, 매일 평균 5,359명이 참석했습니다. 11일간 진행된 홍해작전 기간 중 이용된 차량대수는 총 7,890대였으며, 생수가 104통, 생강차가 82통, 그리고 컵이 27,200개가 소요되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한 자가 7,890명, 안내, 주차, 식당에서 봉사한

상징적 하늘의 만나인 절편 떡을 피차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교제와 협력을 증진하므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자각케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과 감격에 못이겨 정성어린 헌금 41,775,200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되었습니다.

사령관 이종운 위임목사 전두지휘 아래, 49명의 전 참모들은 10일간의 예비 새벽기도회, 11일간의 홍해작전을 일사분란한 협력체제로 홍해를 건너 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신자가 986명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14일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6일 아침 제2차 총동원의 날에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 글짓기 입선2

검소한 우리 가정

김 은 정(초등3부)

우리 집은 우리들이 어렸을 적부터 물건을 아껴서 써왔다. 떨어진 양말은 몇 번이고 꿰어서 신고 다 헤어지면 버린다. 신문 안에 들어 있는 광고지를 모아 메모지로 사용한다. 어머니께서는 반찬을 세 가지 이상은 밥상에 놓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1식 3찬이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우리들이 입던 옷이 작아지면 깨끗이 빨아서 이웃집 동생들에게 주면 예쁜 옷이라고 아주 좋아한다. 이럴 때면 내 마음은 너무 기쁘다. 우리들도 이웃집 언니들이 준 헌 옷을 입으면서 감사한 생각을 한다.

어느날 아버지께서는 연필토막을 보시더니, "은정아! 연필토막 세 개를 합하면 연필 한 자루 길이와 같다. 이걸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써 버린 싸인펜 대롱을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연필토막 끼우게 두 개를 만들어서 나와 내 동생에게 나누어주셨다. 그 후 우리 집은 연필토막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 집은 승용차가 없다. 친구들이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면 부러울 때가 있

다. 아버지한테 우리들도 승용차를 사자고 졸라대면,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집 식구들은 먼 곳을 여행할 때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다닌다. 우리 집은 자전거가 세 대나 있다. 아버지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고 내 자전거와 동생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들은 집에서 공부하다가 운동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열심히 땀을 흘린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에서 달리기도 잘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시기 때문에 자전거가 없다. 올해에는 우리들이 어머니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드려 어머니께도 자전거를 사드려야겠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항상 아껴쓰고, 절약한 돈은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 오늘도 우리 집에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수도꼭지는 꼭 잠겼는지 확인해야겠다. 앞으로 더욱더 모든 것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 표어짓기

이 종 훈(중등3부)

질서와 순종은
천국가는 지름길...

◆ 포스터그리기 입선

이 화(고등부)



◆ 그림그리기 입선1

안 형 민(초등1부)



◆ 그림그리기 2

최 은 진(초등6부)



당신을 향하여

백 원 욱(에바다부)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별과 백색 향연의 달과

온누리를 밝게 하는 해에게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려러 그것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새기게 하소서

바람과 폭풍으로

세차게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당신의 뜻으로 헤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해매이는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정성스레 부여잡게 하소서

가시덤불을 헤쳐내는

상처입은 마음에서

당신의 뜻을 하나로 모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다듬어진 생활에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게 하소서

꿈과 희망과 벅찬 가슴으로

내일이라는 큰 바다에서

당신의 뜻을 누리게 하소서

타는 저녁 노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약속하듯

당신의 뜻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살며

삶의 뜨거운 열기로 뿜어내는 사랑에서

당신의 뜻을 소중하게 이루소서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로

오신

당신의 뜻을 새맑은 샘물로 솟아나게 하소서

영원토록

당신을 향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당신의 뜻을 기뻐하게 하소서

■ 선교지 소식 -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의 전초기지



지난 89년 파송된 김익경 선교사는 팔라우의 주변도시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현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변의 목회자들과 함께 마이크로네시아 교역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무직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팔라우 선교에 적합한 선교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새벽기도운동으로 유명한 충현교회 출신 선교사답게 그는 현지에서 "갈보리대행진"이라는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고난주간을 기해 실시했던 이 특별새벽기도운동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 아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하루 평균 스물세 명이 출석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고, 성도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천국잔치가 되었다. 갈보리대행진을 전개하는 동안 가족 및 팀별찬양대회를 가졌다. 또 금식을 통해 모아진 헌금은 취업을 위해 팔라우에 거주하는 이백여명의 중국인 복음화를 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갈보리대행진의 기도 제목이다.

1.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갈보리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2.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워 주신 주의 종을 불드신사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3. 모든 성도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가정마다 천국이 이뤄지며 영육간에 복을 받아 나그네적 삶을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4. 온 교민 복음화와 팔라우의 영적 부흥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5.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민족사회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선교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전도회 탐방

사랑의 실천 통해 복음 전파

- 마리아전도회 제11지회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고 있는 마리아전도회 제11지회(회장 한명순 집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회로 소문나 있다.

이 전도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회원들 스스로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도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찮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 전도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일 꽃장사"를 통해서였다.

애초에 이 꽃장사를 계획했던 것은 '얼마의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에게 전도회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였다. 임원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는가 하면, 꽃시장으로 가 싱싱한 꽃을 사오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런 정성을 알게 된 일반 회원들은 꽃장사 당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은 장사였는데도 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 꽃장사를 통하여 마리아전도회 제11지회의 모든 회원들은 소속감과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는 주님의 사

랑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되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바탕으로 이들은 사랑의 집 건축헌금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1교구내에 있는 불우 청소년 가장 2명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있게도 되었다.

회원들은 91년의 반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했는지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남은 날 동안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전도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굳은 다짐을 보였다. 이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회장 한명순 집사는 "그러나 저희들은 누구를 구제하겠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구제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본받아 작은 정성을 전달하려고 할 뿐입니다."라며 덧붙였다.

월례회 때마다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382장)를 부르고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표어를 제창한다는 마리아전도회 제11지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복음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한빈 장로 초청 특별강연회

25일 저녁 7시 갈릴리홀에서

경제계 복음화를 추구하는 충현실업인선교교회(회장 남선우 장로)가 특별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5일(목) 저녁 7시 이한빈 장로(소망교회, 전 부총리, 아주대 총장, 현 KIST 이사장)를 초청하여, "사랑과 의의 실천으

로 통일을 앞당기자" 2천년대를 바라본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실업인선교회는 갈릴리홀에서 개최될 이 특별강연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제6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19일 수요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종운 위임목사가 집례한 이번 세례식에서는 35명이 세례를, 14명이 유아세례를, 26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2명이 개종하고 1명이 입교하였다.

인적, 물질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나 용역을 산출해내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 칭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 운영의 방법 활동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경영이라고 한다. 또 이와 관련된 일정단위의 조직 집단을 기업이라 부르며, 그것은 반드시 일정한 이익 창출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는 자를 가리켜 사업가, 또는 실업인이라 부른다.

충현실업인선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분야와 관계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의 모임이다. 회원 모두가 "재화의 창출"이라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그 책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물질적 이익 창출의 달란트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로가 갖

고 있는 이와 같은 달란트를 통해 어떻게 협력하여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떠한가를 반추해보는 뜻 깊은 모임으로도 그 의미

인한 오염에 물들지 않는 나뭇대로의 건전한 실업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보자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시는 방법으로 그 성과가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얻어진 재화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재정관"

성실하고 근면한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진 재화가 올바른 재정관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타락과 부패와 낭비와 과소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충현실업인선교회는 바로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회원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형편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광장이 되기를 원한다. 회원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협력해나갈 때 혼탁한 물질의 오염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실업인으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무한한 기쁨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도 이 모임을 더욱 축복해주실 것이다.

■ 독자의 난

올바른 경제관



남 선 우 장로
(실업인선교회 회장)

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한낱 청지기로서의 자명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물질만능의 타락으로

몰론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의 운영은 성과에 있고 그것은 재화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나타난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진 기업경영의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

에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업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한다. 즉 경건과 청빈과 검소한 생활을 통한 청교도적인 재정관을 가져야 한다. 달란트를 통한